

이쓰리넷(주)의 사회공헌 활동 -

쌓이는 동전만큼 커지는 이웃사랑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임과 사회공헌사업이 자연스럽게 맞물릴 수 있을까? 사회공헌사업을 생각하는 게임업체라면 한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고민이다. 올해 이런 고민에 참신한 해답이 등장했다.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이쓰리넷 주식회사의 2007년 연중 캠페인 '희망동전쌓기'가 그것이다.

'희망동전쌓기'는 이쓰리넷에서 제공하는 동전으로 참여자가 일정시간 동안 동전쌓기 게임을 즐기고, 쌓은 동전과 추가로 개인이 원하는 만큼을 기부하는 신개념의 공익 캠페인이다. 매주 토요일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e스포츠대회나 게임 전시회에서도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시작한 이 캠페인은 8월말 현재 2만 7천명 이상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희망동전을 쌓았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소액기부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만큼 이쓰리넷 외에도 한국기아대책기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그리고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4자 공동협약을 체결한 이쓰리넷과 세 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체계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아대책기구는 국내 사업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해외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며,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단체와 기관, 기업의 참여 유도를 담당한다. 캠페인을 제안한 이쓰리넷은 캠페인의 전체적인 기획 및 운영을 담당 중이다.

한편 '희망동전쌓기'는 중소 IT업체가 진행하는 캠페인이라고 믿기 힘들게 대외 홍보에 있어서도 과감하다. 지난 5월에는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정식 오픈 행사를 가지며 캠페인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희망동전쌓기의 공식 홍보대사인 프리틴 그룹 '7공주'의 희망동전쌓기 캠페인을 소재로 한 감직한 뮤지컬은 지나가던 시민들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다. 이날 행사에는 또, 지난 7월에는 역시 희망동전쌓기의 공식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R&B 여성 듀오 '해즈 워'이 팬 사인회를 열었다. 각종 매체의 기자들의 취재에 캠페인을 대외적으로 한번 더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쓰리넷 주식회사의 성영숙 대표는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은 게임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다"며 "게임도 즐기고 재미있게 기부도 할 수 있는 희망동전쌓기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좀 더 재미있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얹어놓는 동전 하나는 어쩌면 너무 적은 금액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고 보잘 것 없는 동전 하나라도 쌓여가고 모여지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다. 그때의 동전의 가치는 이미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보태진 크고 소중한 가치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이쓰리넷의 희망동전쌓기가 주는 메시지는 나눔은 그렇게 작고 쉬운 행동부터 시작이라는 것. 바로 그것 아닐까.

